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존재

# 손으로 보는 세상





#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점자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랑해요’를 점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 점 자 일 램 표



읽기형 ① ④  
② ⑤  
③ ⑥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원소리
	⠠	⠠	⠠	⠠	⠠	⠠	⠠	⠠	⠠	⠠	⠠	⠠	⠠	⠠	⠠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	⠠	⠠	⠠	⠠	⠠	⠠	⠠	⠠	⠠	⠠	⠠	⠠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	⠠	⠠	⠠	⠠	⠠	⠠	⠠	⠠	⠠	⠠	⠠	⠠	⠠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	⠠	⠠	⠠	⠠	⠠	⠠	⠠	⠠	⠠	⠠	⠠	⠠	⠠	⠠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	⠠	⠠	⠠	⠠	⠠	⠠	⠠	⠠	⠠	⠠	⠠	⠠	⠠	⠠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	⠠	⠠	⠠	⠠	⠠	⠠	⠠	⠠	⠠	⠠	⠠	⠠	⠠	⠠
문장 부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	⠠	⠠	⠠	⠠	⠠	⠠	⠠	⠠	⠠	⠠	⠠	⠠	⠠
	o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	⠠	⠠	⠠	⠠	⠠	⠠	⠠	⠠	⠠	⠠	⠠	⠠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 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ㅅ, ㅈ, ㅊ, ㅍ, ㅈ 다음에 약자 영 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 C O N T E N T S



**점자로 말해요 | 사랑해요 ..... 02**

**테마기획 | 새내기 시각장애학생들은 대학교 보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학교 장애지원센터 담당자 교육 ..... 04**

**우리연합회에서는 | 여성시각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를 도와드립니다  
2014 시각장애인 생활체육교실 ..... 06**

**뉴스앨범 | 상계지역 초등학교 장애체험스쿨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지부 지회 실무자 교육 ..... 08**

**함께 사는 이야기 | 작은 배려의 행복 / 박미진(부산시 부산진구) ..... 09**

**인터뷰 | KBS 제3라디오 '우리는 한 가족' 진행자  
시각장애인 이영호 씨 ..... 10**

**흰 지팡이 발자취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섯 개의 점 ..... 12**

**포커스 | 시각장애인이 관람하는 화면해설영화를 소개합니다 ..... 14**

**2014 03**  
**vol.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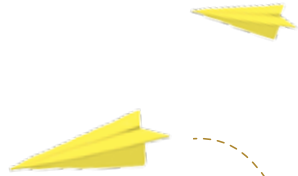


손으로보는세상 제20권 3호 통권 164호

발행일 2014년 3월 15일 발행처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주 소 우)139-856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우암에이스타워 403호 전 화 02-950-0109 팩 스 02-934-8069 이메일 kbuhongbo@hanmail.net

홈페이지 www.nowonblind.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제작 디코라이징(02-542-5064)



새내기가 된 시각장애학생들은 대학교 캠퍼스를 어떻게 보행할까요?

## 대학교 장애지원센터 담당자를 위한 시각장애인 보행지도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3월이 되면서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대학교 입학을 앞둔 새내기 시각장애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새내기 시각장애학생들이 넓은 대학교 캠퍼스를 어떻게 보행할까요?





일반적으로 대학교 캠퍼스는 면적도 넓고 건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의마다 건물, 강의실이 다르기 때문에 자주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학생에게는 낮은 캠퍼스를 홀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보니 몇몇 대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시각장애학생들이 캠퍼스를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캠퍼스가 어떤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주고 캠퍼스 내 보행을 알려줍니다. 또한 학교에 따라 시각장애학생과 도우미 학생을 연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담당자들이 시각장애학생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월 3일부터 7일까지 서울, 경기지역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각 장애인 보행지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가톨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숭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경대학교(가나다 순)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 보행지도 교육은 시각장애인의 이해, 시각장애인 안내법, 자기보호법, 흰 지팡이 보행법, 실내보행, 캠퍼스 보행, 도로횡단 보행,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각장애인 보행을 체험해보는 교육도 있었는데요, 장애학생 지원센터 담당자 분들이 대학교 캠퍼스로 돌아가서 시각장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여성시각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육아양육을 도와드립니다!

여성이 한 생명을 잉태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이 같은 임신과 출산, 육아는 비시각 장애인에게도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다면 여성시각장애인에겐 임신과 출산, 출산 이후의 육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이처럼 여성시각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를 돕기 위해 노원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여성시각장애인에게 홈헬퍼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신 또는 출산을 한 여성시각장애인의 집으로 직접 홈헬퍼가 가서 산전, 산후조리, 영아양육, 가사업무를 돕는 것입니다. 출산 후 100일까지, 하루에 6시간동안 홈헬퍼가 임신, 출산을 한 여성시각장애인을 돕습니다.

또한 이미 출산을 하시고 만 10세 미만의 자녀를 기르는 여성시각장애인에게도 홈헬퍼가 직접 찾아가 도와드리는데요,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거나 한글공부, 책 읽어주기 등 학습에 관한 부분을 위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월 최대 70시간동안 육아로 힘든 여성시각장애인을 홈헬퍼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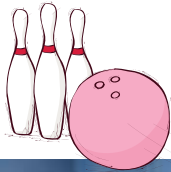


# 2014 시각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추위가 풀리고 서서히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운동하기 좋아졌는데요, 비시각장애인이 운동을 할 때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본인이 원하는 종목의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홀로 운동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운동 기구를 다루다가 다칠 수도 있고 낯선 곳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혼자 운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실시합니다. 시각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수영, 볼링, 스케이트, 다이어트 복싱, 건강증진교실(헬스)과 같은 다채로운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다이어트 복싱, 건강증진교실(헬스) 교실이 처음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시각장애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운동종목을 다양화하기 위해 새로운 종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뿐만 아니라 여름, 겨울에는 계절의 특색을 살려 수상스키교실, 레프팅교실, 스키캠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생과 함께 '장애체험스쿨'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체험스쿨'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월 17일 상계정보문화도서관에서는 상계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이 진행되었는데요, 장애체험스쿨에서는 점자에 대해 배워 보는 점자촉각체험, 점자스티커 만들기와 시각장애인 보행을 체험하는 흰 지팡이 보행, 안내 보행, 안내견 보행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 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지원센터 운영

중도시각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 지회에서는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에 지난 2월 21일에는 지부, 지회 실무자 분들을 대상으로 재활지원센터 운영 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전국 각지에 계신 시각장애인 한 분 한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작은 배려의 행복

박미진(부산시 부산진구)

결혼하기 전 8년 정도 안과에서 일했었다. 그 때마다 느낀 점은 세상에 시력이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었다. 결혼을 하고 이사를 오면서 26개월이 된 쌍둥이들을 집근처 어린이집에 맡겼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우리 아이들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잘 됐다 싶어 그 아이의 엄마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나의 인사에 그 엄마 또한 환한 미소로 말했다. “예 안녕하세요? 같은 어린이집 분이시죠?” 그렇게 인사를 건네고 그 분이 태민이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다. 그 날도 태민이 엄마가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가까이 갔는데도 태민이 엄마는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고 있었다.

분명 어제 인사를 반갑게 나눴는데 오늘은 딴 사람처럼 인사를 하지 않는 태민이 엄마가 참 이상하게 느껴졌다. 한참을 서 있는데 태민이 엄마가 나에게 와서 말을 걸었다. “승준이 엄마 아니세요?” “아, 네.” 나는 멧쩍은 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먼저 보면 인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사람을 잘 못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긴가민가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나는 되물었다. “눈이 많이 안 좋으세요?” “아 황반변성증인데 중심시야가 없고 주변시야만 있어요. 시각장애 등급 받았고요.” 태민이 엄마의 말을 들으니 왜 나를 봐도 아는 체를 안했는지 이해가 됐다. “죄송한데 제가 사람을 못 알아 봐서 그런데 다음에 만나면 먼저 인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태민이 엄마는 환한 미소로 나에게 말했다. 나도 활짝 웃으며 말했다. “죄송하긴요. 먼저 인사하는 것이 대수라고. 그렇게 할게요!”

그 뒤 나는 태민이 엄마를 보면 먼저 가서 인사를 했다. 그렇게 몇 번 만나고 우리 집에 초대하여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다. 며칠 후 우리 쌍둥이들이 감기에 걸려 열이 나고 기침을 했다. 문득 태민이도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하니 태민이도 감기에 걸려 콧물이 나고 열이 났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선뜻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다. 그랬더니 태민이도 아침부터 기침을 해서 병원을 가려던 참이었는데 잘되었다고 했다. 전화너머로 들리니 태민이 엄마의 목소리가 무척 밝았다.

병원에 가서 처음 오는 사람들이 적는 사항도 내가 적어주었다. 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저녁밥을 먹는데 ‘땡땡’하고 문자 한통이 왔다.

‘항상 신경써주고 도와줘서 너무 고맙워요. 저녁식사 잘하고 내일 봐요.’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태민이 엄마의 문자를 보니 마음이 쩡해왔다. 나에게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고 고맙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해졌다. 태민이 엄마를 통해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주 작은 배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작은 일에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게 느껴진 하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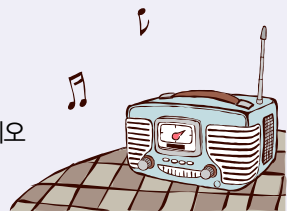




KBS 제3라디오 ‘우리는 한 가족’ 진행자 이영호 씨

##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이영호였습니다”

국내에 유일하게 시각장애인 중심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KBS 제3라디오 프로그램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번 손으로 보는 세상에서는 ‘우리는 한 가족’의 진행자 이영호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Q** 말 그대로 영화 같은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서울 고등학교,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다니셨는데 어떻게 영화 배우로 데뷔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원래는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가고 싶었는데 낙방해서 미술반이었던 경험을 살려 홍익대학교 조소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대로 학교를 다닌 것은 6개월 정도뿐이네요. 다시 복학을 하려고 하니 휴학처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려면 다시 등록금을 냈어야 했는데

당시 조감독이었던 형(이장호 감독)이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 최인호 소설가의 ‘별들의 고향’ 판권을 사는데 제 등록금을 가져다 썼습니다. 이후 다행히 형의 첫 영화인 ‘별들의 고향’이 잘 되었고 두 번째 영화 ‘어제 내린 비’를 준비하면서 제게 연기를 한 번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바로 제가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작 제가 바로하겠다고 하니까 형이 막상 걱정이 되었나 봐요. 형이 술을 진탕 마시고 와서 대본을 던지면서 연기를 해보라고 시키

더라고요. 그 대본이 애인한테 울면서 전화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연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입이 되었던 거 같아요. 다음 날 형이 영화사로 데려가서 인사를 시켜서 그렇게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연기했던 작품 '낮은 데로 임하소서'에서 시각장애인 안요한 목사 역을 맡으셨습니다. 이후 실제로 시각장애를 겪게 되셨는데 이후 '낮은 데로 임하소서' 작품이 남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A** 맞습니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 영화를 찍을 때도 실명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또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실명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영화 '낮은 데로 임하소서'를 찍고 미국으로 가서 School of Visual Arts에서 영화 전반에 대해 공부해서 학사학위를 받고 뉴욕대학교에서 영화미학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뉴욕대학교에서 5년에 걸쳐 석사, 박사 통합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석사를 끝내고 박사과 올라가자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전에도 시력이 나빠서 확대경으로 책을 봤지만 아예 시력을 잃고 나서는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Q** 영화배우, 학업 등 활발한 활동을 하시다가 중도실명을 하게 되셨으면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A** 힘들었어요. 한동안은 일도 안하고 방향을 많이 했습니다. 치료 차 일본을 여러 번 갔다 왔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요. 힘든 시기를 보냈던 거 같습니다.

**Q** 라디오 진행은 언제부터 맡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A** 1995년부터 2000년까지 EBS에서 '사랑의 한 가족'이라는 코너를 맡았었습니다. 이후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통영으로 내려가서 한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바다낚시만 했어요. 2008년까지 서울과 통영을 오가다 통영 생활을 정리했구요. 지금하고 있는 KBS 제3라디오 '우리는 한 가족'은 2011년부터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최윤경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하다가 약 1년 전부터 혼자 진행하고 있어요.

**Q** 라디오 진행을 하시면서 대본을 어떻게 보시나요?

**A** 컴퓨터와 스크린리더를 이용해 듣습니다. 방송 녹음 전에 대본을 받으면 미리 집에서 대본을 들고 옵니다. 또한 녹음을 진행할 때 대본이 나오는 이어폰과 방송녹음이 나오는 헤드폰을 동시에 착용해요.

\* 스크린리더: 컴퓨터 화면 상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들려주는 프로그램

**Q** 대본을 들으면서 동시에 방송녹음도 듣고 또 PD와 소통까지 하려면 녹음하는 것이 꽤 힘든 작업일 것 같은데요.

**A** 맞습니다. 보통 스크린리더 속도를 3으로 설정하는데 방송녹음을 할 때는 속도를 7로 설정해서 대본을 듣습니다. 미리 대본을 들고 말을 해야 하니까 빠르게 설정하는 것이죠. 또 녹음되는 내용을 들어야 하니까 헤드폰도 착용합니다. 한 쪽 귀에 노트북 이어폰을 끼고 그 위에 헤드폰을 쓰는 식이죠.

**Q** 2011년부터 '우리는 한 가족'을 맡아오셨는데 지금까지 가장 애착이 있는 코너가 있으신가요?

**A** 초반에 제가 직접 원고를 작성했던 '이영호의 생각 상자'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매번 직접 원고를 작성하느라 힘들었지만 또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방송되는 코너 중에는 '두 남자 쇼'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저와 왕준기 교수가 각각 팝송 2곡, 가요 2곡을 골라서 곡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코너인데 아무래도 제 의견이 반영되는 코너라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Q** '손으로 보는 세상' 독자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만약 제가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해 무언가를 해왔다면 지금까지 못 왔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돌이켜 보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하면 저절로 다음 일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독자 분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신다면 앞으로 좋은 일들이 곧 따라올 것입니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섯 개의 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섯 개의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시각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점자’입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점자는 손가락으로 만져서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문자로,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점자는 말 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점자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 생겨났으며,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 흰 지팡이 발자취 코너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섯 개의 점, 점자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과연 점자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아 이러니하게도 점자는 시각장애인과 관련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군사용 문자를 제작하기 위해 만들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군대에서는 깜깜한 밤에도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손으로 읽는 ‘야간문자’를 고안했는데요. 1821년 프랑스 육군 장교 바르비에에는 종으로 6점, 횡으로 2점인 총 12점으로 된 야간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야간문자가 군사용으로는 실패하였지만 시각 장애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 바르비에 장교는 자신이 만든 야간문자를 파리맹학교에 보여 주었습니다. 이때 파리맹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각 장애인 루이 브라유는 야간문자를 쉽게 배웠습니다. 이후 브라유는 보다 시각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12점의 야간문자를 6점의 점자로 재탄생 시켰습니다.



바르비에의 12점 야간문자



루이 브라유가 만든 최초의 6점 점자

이후 브라유는 알파벳, 아라비아 숫자 등을 점자로 제작하고 자신이 제작한 점자에 대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처럼 점자를 만든 브라유의 이름을 따서 점자를 ‘브라유 문자’ 또는 브라유의 영어 발음인 ‘브레일’이라고 칭하게 된 것이죠. 이후 파리맹학교에서 교과서를 점자로 제작하여 실질적으로 점자를 사용함으로써 점자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는데요. 그 결과 점자의 사용이 상용화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점자의 유용성이 입증된 후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점자를 수용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점자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찬반논쟁을 벌여 이러한 논쟁이 ‘점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점자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다음 호에서는 한글점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 시각장애인의 역사 (임안수, 2010년)」 참고



 시각장애인과 함께 영화보러가요~

## 시각장애인이 관람하는 화면해설영화를 소개합니다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지난 해 영화 관객 수는 약 1억 2천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객 천 만 명이 관람했다고 해서 흔히 '천 만 관객 영화'라고 말하는 영화도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 영화 관람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영화 관람을 할까요?



시각장애인의 즐거운 영화 관람을 위해 화면해설영화가 있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CJ CGV,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일 전국 16개 지역, 18개 영화관에서 화면해설영화를 상영합니다.

### 화면해설영화란 무엇일까요?

화면해설영화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내용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영화를 말합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미디어접근센터에서는 영화뿐만 아니라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4사의 주요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화면해설방송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화면해설영화 및 화면해설방송은 소리 없이 화면으로만 진행되는 배경, 행동, 표정, 자막 등을 음성으로 설명하여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과 동등하게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면해설방송작가가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화면해설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화면해설 대본을 작성하면 이를 성우가 녹음함으로써 화면해설방송 및 화면해설영화가 제작됩니다.



### 좀 더 특별한 화면해설영화 관람!

지난 2월에는 특별한 화면해설영화 상영이 이뤄졌습니다. 바로 CJ CGV 임직원과 시각장애인이 함께 화면해설영화를 관람하고 CJ CGV 임직원과 시각장애인이 1:1로 매칭되어 안내보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 달 화면해설영화인 '수상한 그녀'를 관람하기 위해 구로 CGV를 찾은 시각장애인들을 CJ CGV 임직원들이 직접 1:1로 안내보행하여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이죠. 또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아무런 배경지식 없이 시각장애인을 안내하기는 어렵겠죠? CJ CGV 임직원은 시각장애인을 만나기 전에 시각장애인 안내보행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안내해서 보행을 할 때는 안내자가 시각장애인을 잡아당기거나 신체의 일부를 잡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안내자의 팔꿈치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시각장애인이 안내자의 팔꿈치를 잡고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시각장애인을 직접 안내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매 달 1회씩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 시각장애인과 식사를 할 때 말과 행동으로 설명해주세요.

시각장애인과 식사를 할 때 시각장애인에게 밥, 국, 반찬 등의 위치를 알려주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안내하시면 됩니다. 말로 설명을 해도 되고 젓가락을 들게 하여 손을 잡고 접시가 놓인 곳을 짚도록 하면서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가운데에 버섯전골, 한 시에 도라지무침, 두 시는 총각김치, 세 시에 백김치, 네 시에 샐러드고요. 마늘과 된장그릇은 국그릇 앞에 나란히 있어요.” 라고 말이죠.

##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대 상** 초·중·고·대학생 및 사회인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 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 및 접수** 02-935-9696 박승만

## 후원안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기관입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 우리은행 1006-601-227253

· 하나은행 757-810001-08405

· 외환은행 170-22-00710-6